

재외한인학회 내달 3일 춘계학술회의

“글로벌 시대, 국민과 민족 그리고 재외동포를 다시 생각”

지난달 사단법인으로서 새 출발한 재외한인학회(회장 이진영)가 내달 3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2013 춘계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통일연구원,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후원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통일과 글로벌 시대, 민족과 국민 개념변화와 재외동포’란 주제로 진행된다. 또한, 학회장인 이진영 인하대 교수를 비롯해 백영욱(명지대), 최영호(영산대), 송석원(경희대), 김용기

(홍익대), 이규장(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장경섭(서울대), 윤경주(글로벌 사이버대), 이창호(한국학중앙연구원), 이춘복(성균관대), 박준규(한양대), 한승미(연세대), 홍면기(동북아역사재단), 이애리(동경대), 강희영(한양대), 이형근(모스크바 삼일문화원장), 홍승호(동국대), 심현용(군사편찬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가한다.

고영민 기자

오유제 대표, S.C ‘경제개발대사’로

오 대표, 월드옥타 애틀랜타 지회장으로 활동중



유에스 파이브스의 클리브 니콜스(Cleve Nichols) 씨가 니키 헤일리 주지사(사진 왼쪽)로부터 출장 중인 오유제 대표를 대신해 임명장을 받았다.

[사진=에지필드 애드버타이저/The Edgefield Advertiser]

사우스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주 상공부가 최근 에지필드 카운티에 소재한 기업, 유에스 파이브스(US Fibers)의 오유제 대표를 ‘사우스 캐롤라이나 경제개발대사’ 47인에 위촉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매년 ‘기업 감사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지역 비즈니스 리더 및 경제단체 등을 경제개발

대사로 임명해 감사를 표하고 있다. 올해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46개 카운티에 걸쳐 총 47명이 경제개발대사로 임명됐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콜럼버스의 주지사 관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니키 헤일리 주지사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바비 히트(Bobby Hitt) 주 상무장관은 “경제 개발 대사 개개인의 노력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오유제 대표는 2012년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애틀랜타 지회장으로 선출됐으며, 현재 동남부 한인무역인협회장직을 맡고 있다.

애틀랜타=김수영 재외기자

박은숙 한불여성총연, ‘한인여성 예술의 밤’

차세대 여성 작가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한불여성총연합회 박은숙 회장은 지난 20일 밤 8시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L’auditorium de la cite internationale des arts’에서 자선문화행사 ‘한인여성 예술의 밤’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무궁화 전시(주정애 작가 추모전시) △한인여성 세계화를 위한 컨퍼런스 △차세대 여성 작가 컨퍼런스 및 한인여성문화작품 소개



한인여성 예술의 밤 'La Nuit de l'art pour les Artistes Coréennes'.

개 △예술공연(전통 예술공연: 피아노와 오르간 콘서트) 및 문학작품 소개 △모국음식문화 및 각태일 등이 진행됐다.

고영민 기자

이형모 본지 대표, 한러음악교류협회 고문에

19일 오후 본사에서 유니올림프(UNIOLYMP) 공식 위촉식

본지 이형모 대표(사진 오른쪽)가 ‘한-러 음악교류협회’ 고문으로 위촉됐다.

유니올림프(UNIOLYMP) 스미르노프 세르게이 게오르그비치 회장은 지난 19일 오후, 본사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위촉패를 통해 “국제 컨소시엄 유니올림프는 유네스코 승인 Children's Forum Olympic Friendship의 발전과 한-러 간 국제예술 교류 확대를 위해 창립된 한-러 음악교류협회의 고문으로 이형모 대표를 공식 승인한다”고 밝혔다.

‘한-러 음악교류협회’는 한-러 수교 23주년을 기념하고, 내년



2월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양국의 선전을 기원하며, 2018년 개최국인 대한민국을 알리며 양국간 문화예술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호텔에서 창립식을 가졌다.

고영민 기자

김홍렬 아메수드 대표, 지정부 장관상

한병길 주아르헨티나대사는 지난 22일 오전 대사관에서 펙스델 아메수드(Amesud)의 김홍렬(사진 왼쪽) 대표에게 윤상직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여한 표창장을 전했다.

표창장은 윤상직 장관이 지난달 20일 제40회 상공의 날을 맞아 상공업 진흥 유공자들에게 수여한 것으로 김홍렬 대표는 재외상공인본아 유공자로 선정됐다.

가족과 이재훈 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한 가운데 표창장을 전달받은 김홍렬 대표는 “부족한 사람에게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표창을 받기까지 추천해 주신 한병길 대사와 한인상공인연합회 이재훈 회장에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한병길 대사는 “아르헨티나 한인으로 가장 크게 성공했고, 이 수상



을 계기로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한인사회를 더욱 알리는 선봉역할을 해달라”고 격려했다.

1976년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김홍렬 대표는 줄곧 섬유업에 종사했고, 91년 펙스델 아메수드를 설립해 현재 산마르틴 시에서 3헥타르 부지에 총면적 2만 평방미터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최대 섬유업 단체인 프로테헤르(Protejer) 재단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르헨티나=계정훈 재외기자

“여러분의 아름다운 꿈을 펼치세요!”

나의꿈국제재단, 심양시조선족문화회와 중국 심양시 제1회 나의꿈말하기대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키우는 나의꿈국제재단(이사장 손창현·사진 왼쪽)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나의꿈국제재단과 심양시조선족문화회(회장 권춘철)는 지난 20일 제1회 중국 나의꿈말하기대회를 심양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심양시 산하 8개 조선족학교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된 26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권춘철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행사는 중국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미래의 꿈을 들어보는 희망이 넘치는 만남의 장이다”며, “이번 행사를 전적으로 후원한 나의꿈국제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손창현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미주대회를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의꿈 말하기대회가 심양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말하고 “나의꿈국제재단과 심양시조선족문화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대회가 청소년들의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나아가 이 대회를 통하여 중국의 우수한 조선족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26명의 학생들은 각각 4분의 제한시간 동안 작가, 변호사, 의사, 요리사 등이 되겠다는 자신들의 꿈을 유쾌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했다. 이들의 꿈 이야기는 듣는 청중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혹은 웃음을 짓게 하는 등 청중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번 대회 1등에는 ‘내 마음의 치유제’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가 뇌졸중을 앓고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당차게 밝힌 심양시조선족제1중학교(고1) 리영 학생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나의꿈국제재단의 손 이사장을 비롯해 권옥중

부이사장, 이근욱 사무총장, 김유진 행사이사, 권문화 이사가 심양을 방문해 대회를 참관했다. 한편 나의꿈국제재단은 오는 9월에는 일본에서, 12월에는 러시아 사할린에서 ‘나의꿈말하기대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또 미주지역에 한국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주대학생 한국가곡제전을 휴스턴에서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세부 일정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손창현 이사장은 24일 “한반도 주변 4개국의 중요성을 인식, 올해 사업은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해 볼 계획이다”며 “이들 4개국에서 행사를 치루고 나면 글로벌 네트워크의 기반틀이 갖춰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상석 편집국장

노윤호 아르헨티나한인회장

빈민촌에 한인들 ‘사랑’ 전달

아르헨티나 전역에 수재민 돕기 위한 한인 가운데 재아한인회는 지난 20일 오전 산 마르틴 지역에 위치한 빈민촌 ‘비르헨 데 까야꾸페’에 한인들의 사랑을 전달했다.

동포들의 정성어린 모금으로 구입한 의류 70박스, 담요 100장, 분유 25박스, 청소·소독제 40박스, 면류 80박스, 플라스틱 대야, 걸레 등 대형 짐차 2대 분량의 구호품은 이날 정오를 즈음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구호품을 전달하며 노윤호(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회장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우리 모두가 가슴 아프다”



며, “한인사회의 정성을 모은 물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생활의 즐거움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주민 대표 빅토르 솔리스 씨는 “한인사회의 따뜻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 구호품이 주민들에게는 소중한 삶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아르헨티나=계정훈 재외기자

이원숙 과기협오타와지부장 수학경시대회

이원숙 재캐나다 한인과학기술자협회 오타와지부장은 내달 4일 오후 1시30분 오타와대학에서 수학경시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7회를 맞는 본 대회는 캐나다 전역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캐나다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4-11학년 학생들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수학 경시대회는 한인 2세들에게 수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들이 장래에 사회 여러 분야의 전문 분야

에서 두각을 나타내 동포사회의 권익 신장은 물론 주재국과 모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함이 목적이다.

한편, 오타와지부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Black Berry에서 Co-op중인 박상현 강사를 초청해 ‘대학에서의 Co-op(협동조합) 프로그램 소개’를 주제로 특별 간담회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캐나다 오타와=신지연 재외기자

산불

작은 불씨가 모두의 내일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당신의 방심 한번이 큰 산불이 됩니다. 산불예방! 녹색 미래를 지키는 행복한 습관입니다.

산불 예방은 **지금부터**

산불 조심은 **내일부터**

우리의 상 **함께 지켜요**

무심코 버린 담배꽂이 수백년 자란 숲을 태웠습니다

남기고 떠난 불씨가 수많은 동물들의 보금자리를 태웠습니다

습관적인 당신의 방심이 큰 산불이 되었습니다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